

# 한우정보 해외소식

제35호

2022.9.15.

## 해외 소식

-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출동향
- 유럽 가뭄이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
- 미국 농무부, 유기축산물 기준 개정안 발표

전 국 한 우 협 회  
한 우 정 책 연 구 소

##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출동향

- 유엔은 8월 22일까지 흑해항로로 8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수출 화물선 1편이 출항한 이후, 22일 현재 34척이 출항했으며 총 72만 3,886톤의 곡물이 이스탄불 공동조정센터(JCC)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
  - 당초 옥수수, 해바라기유, 해바라박(粕) 등의 수송이 중심이었으나 12일부터는 밀도 수송
  - 유엔의 주선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협정은 글로벌 식량 위기 대처가 주요 목적
    - 그러나 협정에 따라 수출된 화물의 대부분은 식량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으며, 그 용도도 사료용 또는 공업용이었음
    -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로는 8월 하순 동아프리카의 '지부티'를 향해 수출된 밀 2만 3,300톤으로 알려짐
  -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재개됐지만 곳곳에 설치된 기뢰 위협과 고액의 선박보험료 영향으로, 흑해 입항에 신중한 선주들이 다수
    - 8월 15일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량부 도미트라세비치 부장관의 회견에 따르면 흑해 항구의 봉쇄가 일시적으로 해제됐지만 이 기회를 이용하는 선사는 적다며 현 시점에서는 협정의 성과가 불투명하고 8월 말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
-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량부가 8월 10일 공표한 2022년 7월 수출통계에 따르면 곡물과 유량종자 등 수출량은 266만톤으로 전월에 비해 49.3만톤(22.7%) 증가
  - 그 중 옥수수 수출량은 전월보다 8.5만 톤 증가해 110만 톤(전년 동월대비 14% 증가)으로 나타남

- 또한 밀 수출량은 전월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함

- 옥수수는 여전히, 최대 수출농산물이며, 같은 달 곡물·유량종자 등 전체 곡물수출량의 41%를 차지함

[ 우크라이나 옥수수 등 수출량 ]

(단위 : 천 톤)

구분	옥수수			소맥			대맥		
	21년	22년	전년비 (증감률)	21년	22년	전년비 (증감률)	21년	22년	전년비 (증감률)
1월	1,996	4,503	126%	508	1,149	126%	120	286	137%
2월	2,476	3,809	54%	709	1,040	47%	61	153	153%
3월	2,620	177	▲93%	697	307	▲56%	131	7	▲95%
4월	2,628	601	▲77%	713	127	▲82%	25	25	0
5월	2,245	959	▲57%	858	50	▲94%	23	11	▲51%
6월	1,698	1,014	▲40%	662	143	▲78%	64	36	▲44%
7월	962	1,099	14%	961	412	▲57%	1,097	183	▲83%

자료 :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(MAPF of Ukraine, www.minagro.gov.ua)

-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는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옥수수가 77만 톤, 곡물 합계 128만 톤이 수출되었다고 공표

-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옥수수는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, 밀과 보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흑해항로 재개에 따른 향후 수출동향이 주목됨

[ 우크라이나 8월 곡물수출량 (8월19일) ]

(단위 : 천 톤)

구분	2021년 8월	2022년 8월	전년 비 (증감률)
소맥	1,970	407	▲79%
대맥	973	108	▲89%
옥수수	191	768	302%
합계	3,134	1,283	▲59%

자료 :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(MAPF of Ukraine, www.minagro.gov.ua)

자료 :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(22.8.29.)

## 유럽 가뭄이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

- 유럽위원회 연구센터 작물모니터링서비스(JRC MARS)<sup>1)</sup>는 8월 22일, 월차 작물 관측 보고에서,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여름작물<sup>2)</sup> 단수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표
  - 한편, 건조한 날씨에 의해 겨울작물<sup>3)</sup>은 비 피해로 인한 수확기의 품질하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, 단수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
    - 또 목초가 많은 회원국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기온 및 강수량
  - 7월 1일~8월 15일까지의 기온은, 이베리아 반도, 프랑스 남서부, 이탈리아 등에서 평년(1991~21년)을 2℃ 이상 웃돌았음
  - 또, 같은 기간의 강수량은,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, 영국 남부 등에서 평년의 5할 미만에 불과
- 곡물의 단수
  - 유럽위원회 연구센터 작물모니터링서비스(JRC MARS)에 따르면, 작물의 단수는 2017~21년 5개년 평균 대비, 옥수수는 16% 감소, 콩은 15% 감소, 해바라기 등 12% 감소, 사일리지용 옥수수는 등 7% 감소로 예측하고 있음
  - 국가 및 지역별로는 스페인, 프랑스, 이탈리아 중부·북부, 독일 중부, 헝가리, 루마니아, 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의 감소가 두드러짐
  - 이 단수 감소의 예측은, 작물의 개화기와 등숙기(여름기)에 물 부족과 고온이 겹친 것을 한 요인으로 하고 있음

1) JRC MARS : Joint Research Center/ Monitoring Agricultural ResourceS

2) 여름작물 : 봄철에 파종하여 가을철에 수확하는 작물

3) 겨울작물 : 전년의 가을철이나 동절기에 심어서 당해 여름에 수확되는 작물

- 또 몇몇 회원국에서는 관개 이용이 제한된 점과, 이탈리아 북서부와 스페인 남부·중부 등에서는 저수지 수위가 극도로 낮아져 밭 관개를 중단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음
- 한편, 밀이나 보리와 같이 여름형과 겨울형의 작형이 있는 작물이나, 호밀이나 유채씨앗과 같은 겨울형의 작물에서는, 5개년 평균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으며, 7월의 예측에 비해 상향 조정된 작물도 있음

[ 작물별 단위 예측 ]

(단위 : 톤/ha)

작물	5개년 평균 ①	7월 예측 ②	이번 예측 ③	5개년 평균비 ③/① (%)	7월 예측비 ③/② (%)
소맥 계	5.62	5.54	5.56	▲1.1	0.4
연질소맥	5.84	5.74	5.76	▲1.3	0.3
듀럼소맥	3.52	3.40	3.42	▲2.9	0.6
대맥 계	4.85	4.83	4.85	0.1	0.4
봄철 대맥	4.13	4.10	4.12	▲0.2	0.5
겨울철 대맥	5.75	5.72	5.72	▲0.5	0.0
옥수수	7.87	7.25	6.63	▲16.0	▲8.6
라이 맥	3.90	4.07	4.11	5.3	1.0
라이 소맥	4.19	4.20	4.21	0.4	0.2
유채씨앗	3.07	3.13	3.15	2.4	0.6
마령서	34.20	35.10	34.20	0.2	▲2.5
전체	74.40	77.40	75.30	1.2	▲2.7
해바라기	2.34	2.18	2.06	▲12.0	▲5.5
대두	2.88	2.72	2.46	▲15.0	▲9.6
사일리지용 옥수수	41.60	39.70	38.60	▲7.0	▲2.6
합 계	5.49	5.38	5.28	▲3.9	▲1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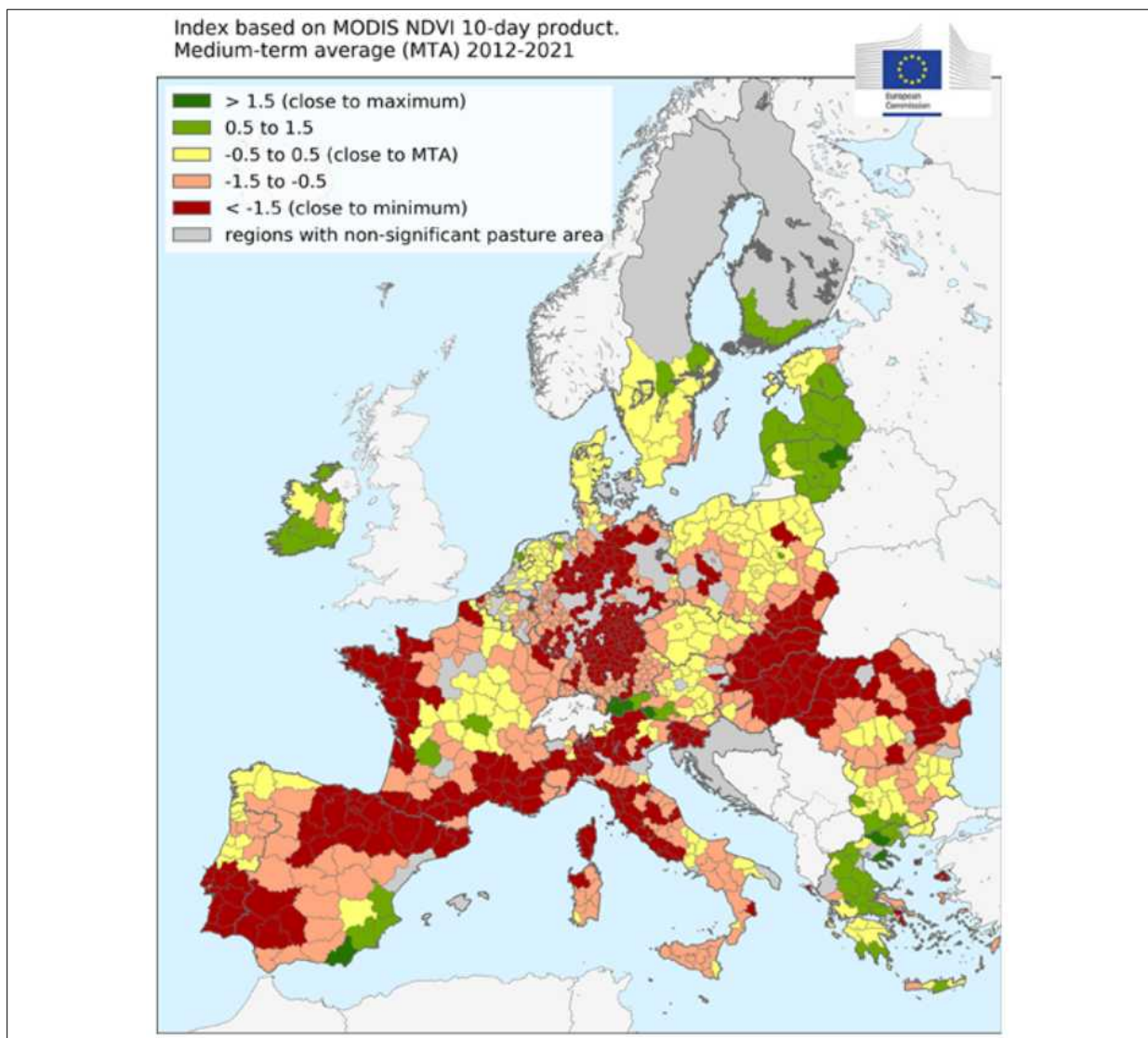
자료 : JRC MARS "Crop monitoring in Europe"

주 : 듀럼소맥은 마카로니 원료로 주로 쓰임

## □ 목초지 상태

- 유럽위원회 연구센터 작물모니터링서비스(JRC MARS)에 의하면, 넓은 지역의 목초지는, 고온이나 가뭄에 의한 물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
- 프랑스는 중앙 지역을 제외한 넓은 지역의 목초지에서 고온과 가뭄 영향을 받고 있으며, 독일도 국토의 대부분, 그 중에서도 중앙부에서 목초가 현저히 감소하였음

### [ 목초지 상태 (목초생산지수) ]



자료 : JRC MARS "Crop monitoring in Europe"

- 주 : 1) 목초생산지수는, 2012~21년의 평균과 비교하여, 5단계 평가로 목초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, 진한 녹색이 최고 양호, 진한 갈색(茶色)은 불량, 황색은 평년수준을 나타냄
- 2) 조사기간은 7월 1일 ~8월 10일

- 베네룩스 국가(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)에서는, 물 부족으로 목초생육이 정체되고, 사질 토양지역이나 남부에서는, 재 파종이 필요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음
-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북부 및 중부지역에서도, 목초 상태가 좋지 않음. 아일랜드 등을 제외하고, 유럽의 주요 우유 생산국 상당수는 목초 상태가 5단계 중, 최악이거나 두 번째로 나쁜 상태

## □ 각국 관계 기관의 반응

- 프랑스 ‘농업경영인연합회’는 8월 22일, 생산자가 최근의 ‘이상사태’를 극복할 수 있도록, 농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과 농업재해에 대한 긴급대책, 공통농업정책에 따른 선급보조금의 증액, 원산지 보호 호칭에서 정한 제한사항(仕樣)의 일시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공표
- 영국 ‘전영농업인연합회’는 농지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와 하천 유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관개 이용을 허용하는 취수제한 완화, 빗물 취수설비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

자료 :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(22.9.1.)



## 미국 농무부, 유기축산물 기준 개정안 발표

-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(USDA/AMS)은 8월 9일 ‘유기농 가축 및 가금에 관한 기준(OLPS : Organic Livestock and Poultry Standards)’ 개정안을 발표
  - 또 같은 달 19일에는 공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
  - 이번개정은 유기농 식품생산법에 규정된 가축 및 가금의 사육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, 생산자와 미 농무부(USDA)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식을 통일하고 유기농 축산물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것이 목적

### [ 소, 돼지 등 가축 사육환경에 관한 주요 기준 ]

#### ■ 공통사항

- ▷방향 바꾸기, 옆으로 눕기, 일어서기, 사지 뺄기 등, 일상적인 동작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
- ▷실내공간은 충분히 넓고 견고한 시설로 하고, 쾌적한 침상과 휴식장소를 확보할 것
- ▷설비·기구: 적절히 세정·소독할 것
- ▷스톨식 축사에 대해서도, 가축이 자연스런 동작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여유 있는 스톨 설비를 확보할 것
- ▷야외 공간에 대해서도, 계절, 기후, 지리, 가축의 종류, 생산단계에 적합한 최대한의 식생환경을 갖추어 줄 것

#### ■ 소에 대해

- ▷젖소 송아지에 대해, 생후 6개월령까지는, 개별 스톨에서 사육 가능, 다만, 송아지들이 서로 볼 수 있고, 냄새를 맡고,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
- ▷집단 사육하는 소에 대해, 하루 중 대부분 방목하는 등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, 타이스톨(tie stall barn), 후리스톨(free-stall barn), 스텐션 우사(stanchion stall barn) 등도 오거닉 설비 일부로 인정함

#### ■ 돼지에 대해

- ▷분만 혹은 포유 모돈, 공격적인 시기의 돼지 등을 제외하고, 집단(群) 사육할 것, 임신 모돈 용 스톨은 금지함
- ▷분만 혹은 포유 중인 모돈을 제외하고, 코로 땅을 파헤칠 수 있는(rooting) 환경을 갖추어 줄 것
- ▷모든 돼지가 사료에 접근 할 수 있다면, 급이 스톨 수는 돼지 두수보다 적어도 됨

자료 : USDA/AMS 「National Organic Program (NOP) : Organic Livestock and Poultry Standards」



□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로 가축 및 가금의 동물복지(AW)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

-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, 가축이 일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, 젖소 송아지나 번식 모돈의 스톨 사육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함
- 또한 가금에 대해서는 실내외 최대 사육 밀도, 목욕용 모래 및 햇대 설치 등 실내 공간 사육 환경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, 소나 돼지에 비해 보다 구체화되었음

[ 기타 주요 기준 ]

■ 예방적 조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가축의 몸 상태를 관찰하여,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것</li> <li>▷파행(跛行)을 관찰·기록하고, 문제가 커지기전에 대처할 것</li> <li>▷목초관리 및 분노 모니터링 등의 예방조치, 기생충 방제 대책 등 수립</li> <li>▷식별을 위한 예방적 처치는 합리적인 월령에서 스트레스 및 고통을 최소화하고, 기능 보유자가 처리할 것</li> </ul>
■ 수송 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수송시간은 동물복지에 맞게 정하고, 모든 가축은 수송에 적합한 상태로 할 것</li> <li>▷수송하는 송아지는 배꼽 탕줄이 건조한 상태로, 자력으로 걸을 수 있어야함</li> <li>▷보행불능 가축은 출하를 위해 수송하지 않을 것</li> <li>▷수송차량에는, 환기시설, 침상, 물, 사료(12시간 이상 수송시)를 갖출 것</li> <li>▷가축취급자는 동물복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계획을 수립할 것</li> </ul>
■ 도축과 안락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인도적인 취급과 식육처리에 관해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규칙에 따를 것</li> <li>▷파행 가축에는 족쇄를 채우지 않고, 도축 전에 기절시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것</li> <li>▷생산자는 질병환축 및 다친 가축을 신속하면서도 인도적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하며, 질식, 타격 등 비인도적 안락사는 금지함</li> </ul>

자료 : USDA/AMS 「National Organic Program (NOP) : Organic Livestock and Poultry Standards」

- 그 밖에도 동물복지(AW)나 개체의 식별을 위한 예방적 처치나 금지하는 조치, 수송 시의 요건, 도축이나 안락사의 요건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,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음

- 금지행위로, 소는 꼬리 찢르기, 낙인찍기 등, 돼지는 꼬리 찢르기, 자돈 이빨 찢르기 등

□ 개정 기준 시행 후의 유예기간은 가금을 제외한 가축기준으로는 1년, 브로일러와 관련된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음

○ 또한 채란계 관련 기준의 유예기간 중, 기준 시행 전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유예기간에는 두 가지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데,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

□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 공청회는 8월 19일,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음

○ 당일에는 유기농 농업단체, 프로그램 인증기관, 계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진술이 진행됨

○ 특히 유기농 축산물과 관련된 단체나 생산자가 눈에 띄었으며, 생산자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음

○ 한편 계란 생산자 단체는, 닭장 없이 사육하는 방법으로는 닭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기 쉬워 폐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

- 야생조류나 그 배설물 등에 대한 접촉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상승할 것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음

□ 본 개정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는 10월 11일까지 실시될 예정

○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(USDA/AMS)은 널리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,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기준이 수립될 예정

자료 : 미국 USDA,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(22.8.31.)